



총지중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옴마니반메훔을 본준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 총지중보

시람삼세 나타나는 일체 모든 사실들과 내가 체험  
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은 법신불의 당체로  
서 활동하는 설법이다. 짙은 색을 뽀얗게 일체  
세간 현상대로 불의 법과 일치하게 체득함이 교리  
이니 체험이 곧 법문요 사실이 곧 경전이라.

(宗祖法說集中)

발행인: 총지화 편집주간: 지성 편집인: 황의수 인쇄인: 김규식

www.chongji.or.kr

제21호 총기 30(2001)년 2월 1일 목요일 구독신청: 02-552-1081

## 12대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혜암 종사' 선출

1월 18일, 임시 중앙총의회

지난 1월18일 임시 중앙총의회에서 불  
교총지중 제12대 통리원장에 부산경남교  
구장인 실보사주교 혜암종사를 만장일치  
로 임명했다.

신임 통리원장 혜암종사는 '취임소감으  
로 '갑작스런 통리원장 인준에 당혹스럽  
다'고 말씀을 하시며, "총기 30년을 맞는  
올해 너무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다며 어  
려움속에서도 진언으로 총지중이 여기까  
지 왔습니다. 앞으로 원로 대덕스승님을  
잘 모시고 종단의 화합과 질서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헌·종법에 맞는  
종단의 체계를 잡을 것이며 부당하고 현  
실에 맞지 않는 제도들을 하나 하나씩  
고쳐나가겠습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번 통리원장 취임으로 오랜 직무대  
행체제가 끝나고 종단행정수반으로서 12  
대 불교총지중이 출발한다. 앞으로 취임  
식과 각 부장 임명은 종령님과 여러 원  
로 스승들과 상의하여 이른 시일내에 인  
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혜암종사는 20여년 이상 종단 발전과  
종생교화에 노력하였으며, 종단행정 경  
험이 많아 성년으로 자란 총지중을 강  
한 추진력과 화합의 정신으로 이끌어  
제2창종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제12대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약력



성명 혜암 종사(박수권)  
1935년 11월2일생  
1980년 불교총지중 건화사 주교 임명  
1989년 불교총지중 중앙총회의원피선 및  
부위원장 역임  
1990년 불교총지중 전담건설위원 선임  
1991년 불교총지중 통리원 사회부장  
1992년 불교총지중 대구·경북 교구장  
1993년 불교총지중 실보사 주교발령  
2000년 불교총지중 부산 경남 교구장  
2001년 불교총지중 제 12대 통리원장 임명



▲ 지난 14일 부산 정각사에서 7시간 철야용맹정진을 하고 있는 모습. 새해에는 진언행자로 더욱 거듭나기를 빌어본다.

## 전국 사원 새해불공 봉행

'참 나를 찾는, 참 마음을 찾는 한해가 되도록...'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국사  
원에서 새해불공이 시작되어 원만  
히 회향되었다. 올해의 새해불공  
은 특정종령의 새해 신년법어에서  
"눈앞의 현실에 현혹되어 남의 삶  
을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  
해에는 모두 잃어버린 자신을 찾  
도록 노력합시다. 변영이나 발전

이나 다 좋은 말이지만, 자신을  
되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  
습니다." 참 나를 찾는 참 마음을 찾는  
한해가 되도록 하자는 법어를  
내리셨다.

새벽불공, 오전불공, 오후불공,  
저녁불공의 4분精進을 하였다.  
특히 마지막날인 14일에는 7시간  
철야 용맹정진으로 새해의 서원을

세웠다. 종조설법집의 "하루동안  
행복함은 새벽 불공함에 있고 철  
일동안 행복함은 자성불공 함에  
있고 한달 동안 행복함은 월초불  
공 함에 있고 일년 동안 행복함은  
새해불공 함에 있고 평생동안 행  
복함은 불퇴전에 있느니라"라는  
게송처럼 일년의 계획과 서원을  
세우는 중요한 불공이었다. 특히  
부산 정각사는 500여 교도들이 참  
여하여 새해불공을 하였으며 총지  
사 및 기타 지방사원에서도 예년  
보다 많은 교도들이 참여하여 총  
지 30년이 되는 신사년 새해의 희  
망찬 뜻을 올렸다.

## 총지캠페인

화장,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

사람이 살다가 그 인연이 다하고 나면 이 세상에  
차디찬 육신만을 남긴다. 육신을 흔히 정신을 담는  
그릇이니 영혼의 집이니 하며 그럴 듯하게 표현하지  
만 알맹이가 빠져버린 육신을 보면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의 것이라 해도 좋은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사  
람들은 죽을 앞에서 슬퍼하면서도 지체없이 장례를  
치르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불교의 수  
행승들은 자신의 입멸 후 남을 육신에 대해서는 비정  
하리 만큼 철저하다. 육신은 불에 태우고 남은 유골  
마저 갈아서 흩어 버린다. 살아서도 소홀히 하던 육  
신을 죽고 나서까지 홀대하는 것이다. 또 예전에 어  
떤 스님은 제자나 도반에게 폐기되고 번거롭게 할까  
봐 길숙한 산속에 들어가 손수 화장할 나무를 마련하  
여 불을 놓고 그 위에 앉아 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국토의 1%인 982km<sup>2</sup>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 공판터의 3배, 서울시 면  
적의 1.5배에 달하며 또 매년 20여 만기의 분묘가  
발생,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가 되는 면적이 묘지로  
변하고 있다. 이는 따라 앞으로 서울은 2년 이내, 수  
도권은 5년, 전국적으로는 10년 이내에 묘지 공급이  
한계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요즘은 매장하여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파내  
어 화장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  
손들이 일정기간 후까지 그 묘를 잘 보살펴야 파내어  
화장도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주인 없는 묘가 되  
어 포크레인으로 푼 파내어지거나 불도저로 밀어버  
릴 수도 있다. 비록 영혼은 없다고 하나 자신의 육신  
을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로... 상상도 하기 싫을 것이  
다. 사람이 세상에 나는 것은 한 조각 끈구름이 나는  
것이고 죽는 것은 한 조각 끈구름이 멸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무상계를 독송한다. 끈구름처럼 흔적도 없이  
멸하라는 것은 집착이나 소유욕을 버리라는 부처님  
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은 굳이 국  
토 훼손의 방이나 자연보호를 위해서라기 보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서 스스로의 집착  
을 버리는 것이 어떨까.

## 1교도 10부 총지중보 선전합시다

### 총지중보는

여러 교도분들의 것입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총지중보를 포교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되  
길 바랍니다.



▲ 퇴임식 및 은가사 수여식 후 한자리에... 종단발전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신년 하례법회 및 퇴임식, 은가사 수여식

중령 특별교시 엄격하고 냉철한 수행생활 · 종단화합 · 새시대에 맞는 교화방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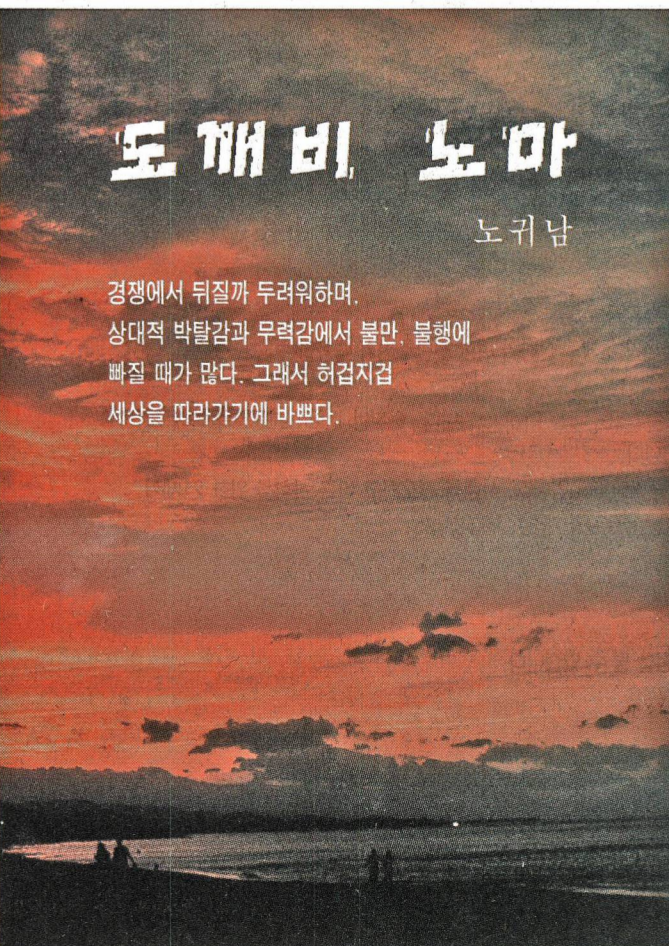
2001년 신년 하례법  
회 및 퇴임식과 은가  
사 수여식이 지난 1월  
18일 오후2시에 전국  
의 스승님과 교도 200  
여명이 모인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먼저 신년하례법회  
에서 특정종령은 지난  
해 종단과 승단의 모  
습을 보면 100점을 줄  
수가 없다고 지난 해  
를 평가하면서 올해는  
모든 승단과, 교도들은  
먼저 계획을 철저히  
세워 그 계행을 철저

히 지켜서 엄격하고 냉철한 수행  
생활을 준수하여야 하며, 승단의  
화합단결을 강조하였다. 승단의  
화합없는 교도를 교화할 수 없  
으며, 승단의 화합없는 승단의  
발전이 없음을 명시하고 무책임한  
구업을 짓지 말고 진실된 진언수  
행으로 모든 계율을 철저히 지키  
고 실천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새시대에 맞는 교화의 방법을 개  
발 연구하여 현실에 맞는 종단으  
로 거듭나도록 모든 승직자들은  
빠를 짚는 마음으로 수행에 전념  
할 것을 말씀하였다. 이어서 15명  
의 퇴임스승에 대한 특정종령의  
선물과 교도들의 선물이 수여되었

으며, 효강, 경관, 청암, 수성, 삼  
정행, 불멸심, 일성해, 대도행, 총  
지화 등 종사, 지수 9명에게 은가  
사를 수여하였다.  
특정종령은 기로스승님에게 먼  
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며 지금  
은가사가 수여된 스승님들은 총지  
중 참종과 함께 교세발전에 노력  
하고 고생하고 정진하여서 오늘날  
불지의 종단으로 거듭났으며 이는  
오로지 스승님들의 노고라며 치하  
하고, 앞으로 은가사가 수여된 스  
승님이나 퇴임스승님은 죽는 날까  
지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켜 오로  
지 중생교화와 종단발전에 가일층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옛날에, 도깨비불과 도깨비 방망이가 없던 때였다. 경주  
남산골에 꾸러기 도깨비 노마가 살았다. 노마는 하도 장난  
이 심하여, 도깨비들까지 깜짝 놀라게 하는 짓도 잘도 꾸  
미고 다녔다. 요사이 도깨비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냄  
새로나 배불리 먹지만, 노마는 향으로 먹는 음식에 성이  
차지 않았다. 어쩌다 길 잃은 양을 흘려 요리해 먹은 맛을  
잊지 못했다. 뜨끈뜨끈한 피맛을 동무들한테 전염시켜, 웬  
만한 도깨비들은 산복숭을 은근히 노리고 있었다. 이 일은  
엄연히 도깨비법에 어긋났지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루는, 멀리 너럭바위에 까까머리 스님이 혼자 턱 앉아  
있었다. 그쪽에서 무슨 빛이 나는 것 같은 순간에 노마의  
눈에 들어온 풍경이었다. '헐, 오늘엔 큰놈을 낚은 것  
같은데...' 노마는 속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다가갔다.  
가까이 갔는데도 스님은 기척도 못 느낀 듯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 봐라. 여느 사람처럼 생겼는데, 머리카락이 한 올  
도 없네. 어디 보자.'  
뒤에서 살그머니 어깨를 잡았다.  
노마는 촉각이 이상해 얼른 손을 당겼다. 마치 화강암을  
만질 때 기분 같았다. 한 번 더 세계 만져 보았다. 역시 감  
촉이 딱딱하고 차가웠다.  
'조각품도 아니고, 분명 사람 형상인데...'

음을 하나로 모으는 선정(禪定)에서 나왔다.  
오늘날 생활은 바위와 같이 흔들림없이, 용광로처럼 넘  
치는 열기로, 자기 중심에서 힘을 찾는 공부를 해 보겠다  
는 생각을 하기 어렵게 한다. 모두 바깥의 물질세계에서  
행복을 찾는다.  
생명공학은 인간설계도 계놈을 거의 완벽하게 그려내  
고, 종(種)에 걸림없이 생명체를 교배하고 분리하기를 밥  
먹듯 할 수 있게 했다. 속도를 신처럼 승배하는 정보·통  
신, 마법의 신물질(신소재) 분야 등 첨단 산업에다 21세기  
의 승부를 건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에너지·환경  
산업으로 풀려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시정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업 그레이드다. 업 데이터다 하여 상품 생명 주기  
는 자꾸 빨라진다. 그만큼 물질적 행복 추구도 속도를 내  
야 한다. 시장은 인간 탐욕을 끝없이 늘어나게 하고, 점점  
정신세계의 황폐화와 인간성 상실은 깊어만 가고 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경쟁에서 뒤질까 두려워하며, 상  
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에서 불안, 불행에 빠질 때가 많다.  
그래서 허겁지겁 세상을 따라가기에 바쁘다.  
21세기 벽두에, 현대인의 행복추구와 가치관을 되돌아  
본다. 아이들과 도깨비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부처님 가  
르침의 힘으로 미래를 여는 꿈을 꾸었다. 바위처럼 용광  
로처럼 본래 마음에서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고...



## 도깨비 노마

노귀남

경쟁에서 뒤질까 두려워하며,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에서 불안, 불행에  
빠질 때가 많다. 그래서 허겁지겁  
세상을 따라가기에 바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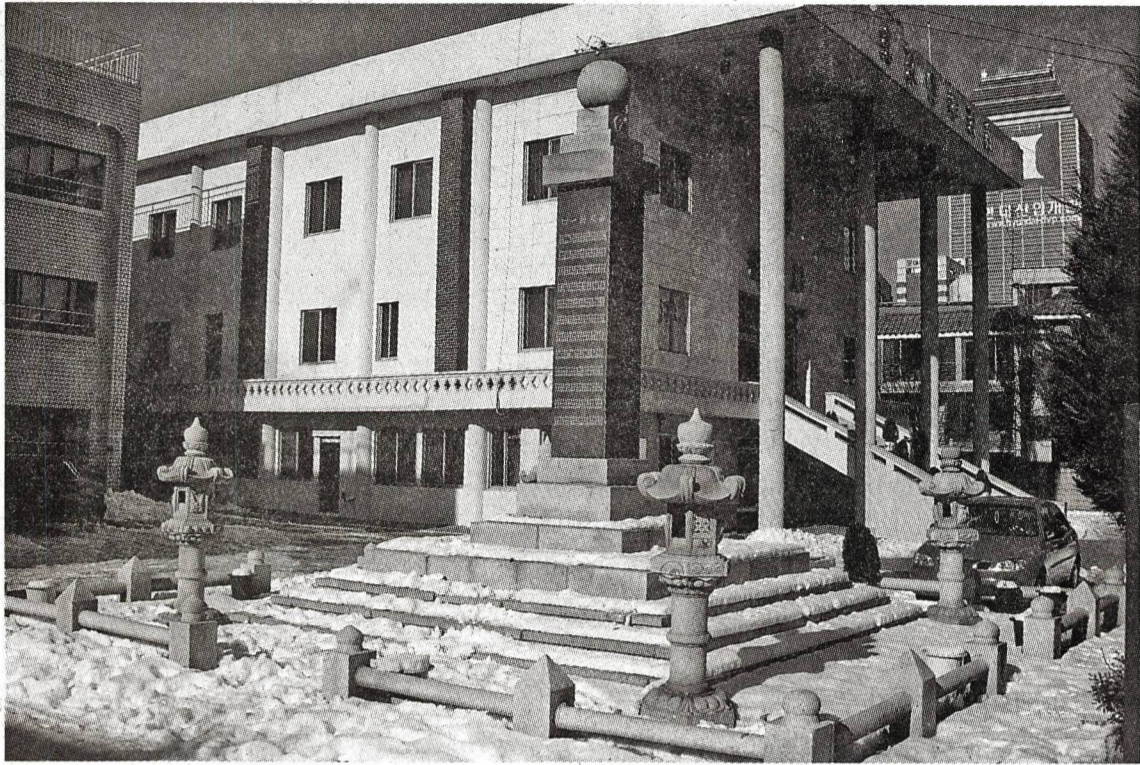


총·지·기·획

# 실사구시의 자세로 제2창종을...

세상은 변하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대중들의 의식은 참으로 놀라게 전환되고 있음을 각인하지 않고서는 종단의 모습은 결코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실사구시의 정신, 도전의 정신과 원정대중사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다시한번 새겨 30년의 역사를 창조하자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밑으로는 고통받는 중생의 구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종단이 창종 30년이 되었다.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창종이념으로 삼으신 원정대중사의 가르침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다.

새로운 세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첨단정보화'와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첨단 정보화는 거스를 수 없이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첨단정보체계의 발전은 전 세계를 하나의 그물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전하고 받고 있다. 이 새로운 문화는

세계적, 사회적 흐름을 몸과 의식으로 느끼고 종단의 정책으로 반영해야만 총기 30년의 청장년 역사를 희망차게 만들 수 있을 것

금세기 들어 인류의 생활을 근본부터 바꾸었던 산업화보다 더 인류의 생활과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거대한 통신망으로 연결된 하나의 지구촌, 당연히 생존을 위한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세계적, 사회적 흐름을 몸과 의식으로 느끼고 종단의 정책으로 반영해야만 총기 30년의 청장년 역사를 희망차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전국스승님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자료다. 종단의 전법과 교화의 방법을 내외국에 알리기 위해 문제점의 분석을 통한 종단 발전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단의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전법·교화 방법의 현대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 우선 생활의 불교화와 불교의 생활화를 표방한다

우리종단의 사원은 84%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으로는 포교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원의 74% 정도가 일을 할 수 있는 중무인력이 없는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는 머리와 몸은 있는데 이를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법교화의 프로그램에 대한

종단의 노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령층대의 포교와 교화방법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의견은 77%가 불공과 제공양에 치우쳐 있으며 나머지 13%는 계층별법회와 방생 그리고 성지순례 등 미미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종단의 노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령층대의 포교와 교화방법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98년 조계종 포교원에서 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포교해야 할 대상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과 어린이가 65%에 이르고 청장년 및 중년여성 17%에 불과한 응답은 불자들 사이에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원 개명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민공간 활용 또한 최근 들어 타 종단에서는 포교를 위한 종단 사찰, 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대중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시대적 추세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의식과도 결합하고 있어 각 사찰과 사원의 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 종단은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역인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것은 8%정도 밖에 안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스승님들의 대 지역사회 영향력, 대표성, 상징성 등이 고립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사원을 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데 대해 '좋은 발상이다' '프로그램만 좋으면 찬성이다'의 의견이 전체 89%를 차지하여 앞으로 사원을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은 주민·직장인을 위한 참선, 관법 수행처가 30%를 차지하였으며, 한국불교 밀교성지 등 유적답사가 18%, 전통혼례 및 소규모 문화공간장소 제공이 14%, 전통차를 마시며 답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 12%, 교계 내외인사 초청강연 10% 등으로 나타났다.

(가칭)종단발전특별기획단 구성으로 종단의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 마련 시급 형식적으로는 앞에서 나타난 요구하고 있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는 (가칭) 종단발전특별기획단(이하 기획단) 설치가 필요할 것이다.

(가칭) 종단발전특별기획단은 종단발전의 본격적인 지역조사 및 현장분석과 타종교 및 종단의 발전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종단발전의 엔진이 되어야 한다.

기획단의 조직체제와 인적구성은 종단 스승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명실상부한 조직의 체계를 갖추어야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실사구시의 자세속에서 각 지방 사원에서 일할 수 있는 중무원의 확보가 시급하며 이 중무원을 통한 중앙과의 유기적 관계를 가져 조직의 체계를 내실화 시켜야 한다.

다양한 계층별 연령별 법회체계를 갖추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법회체제에서 젊은 종단을 만들어야 할 것

또한 다양한 계층별 연령별 법회체계를 갖추어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다양한 법회체제에서 젊은 종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또한 불공을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체험을 통한 진리에 도달하는 내용과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의식의 방법도 다양화하여 정식 의식과 약식 의식에 대한 개발과 스승님의 승복 또한 현대에 맞는 참신한 디자인으로 종단의 젊음을 나타낼 수 있었던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빙산에 일각일 수 있다. 또한 힘난하고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대중들의 의식은 참으로 놀라게 전환되고 있음을 각인하지 않고서는 종단의 모습은 결코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실사구시의 정신, 도전의 정신과 원정대중사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다시한번 새겨 30년의 역사를 창조하자.

## 불교의 戒行은 현대사회 폐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

### 생활 속의 밀교



얼마 전에 자살사이트가 유행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그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서로 자살을 도와준다는 이름으로 자살자를 대신 죽여준다는 것에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다.

지금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아노미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노미라는 말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의 자살론에서 자살의 유형을 3가지로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가 아노미적인 자살이라는 것이다. 아노미는 가치관과 도덕과 같은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목적의식과 이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사회나 개인에게 나타나지는 불안정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점차 중요한 것은 자살이 아니다. 현실세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각종 중독현상이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스스로 중독됨으로써 해서 정신적인 자살을 하는 것이다.

범망경의 십중대계 중 첫 번째가 불살생계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불자들아, 만일 너희가 직접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칭찬을 하면서 죽이거나,

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어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원인이니, 죽이는 반연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생명이 있는 온갖 것을 집짓 죽이지 말아야 한다.

보살은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함을 보여 마을을 내어 일체중생을 방편해서 구원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즐거운 생각과 마음으로 거침없이 살생하는 것은 보살의 큰 죄가 된다.

또 범망경의 사십팔경계에는 「중생을 죽이는 도구를 준비해 두는 것도 가벼운 죄가 된다」고 하고 있다.

물론 불교에서는 자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스스로 죽이는 것 또한 불살생계를 범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큰 죄업을 지우는 것이다.

밀교에는 수많은 변화신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분노신의 등장은 마음의 번뇌와 마장을 항복시키기 위한 방편신들이다.

지금 혼란스러운 사회적 가치관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지계(持戒)의 방편바라미가 필요하다.



### 정보다이렉트

#### 노인골절 예방법

1. 아침에 기상할 때 앉았다가 일어날 때 등 자세 변화 때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다.
2. 신발은 폭이 넓은 편한 신발을 착용해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3. 아침 점심 저녁 15분씩 보건체조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유연하게 한다.
4.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하면 치료를 받는다.
5. 젊을 때부터 꾸준히 하루 걸러 한 번씩은 운동한다. <동아>

#### 신용카드 1장당 빛 77만2000원꼴

카드 1장당 지고 있는 빛이 77만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 부채중에는 최대 연 29%대의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이 전체의 64%나 차지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법인카드를 제외한 가계신용카드 부채는 39조 8000억원으로 99년 말 23조3000억원에 비해 70.5%증가했다. 이 가운데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을 이용한 빛이 25조3000억원으로 99년 말 대비 86.8%늘어났다. <중앙>

#### 서울시민 1인당 44만원 길에 흘러

99년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3.5%에 해당하는 17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교통혼잡비용'에 따르면 99년 전국의 지역간 도로와 7개 도시에서 발생한 교통혼잡비용은 98년에 비해 40% 가량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4조1753억원으로 시민 1인당 44만원이 교통체증 비용으로 들어갔으며 차량 1대당 180만원, 연료 135 / 가 낭비됐다. <경향>

#### 국민 한사람에 보험 1.71개 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 당 1.71개꼴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현재 생, 손보사에서 개인에게 판매한 각종 보험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모두 6831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별로는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 가입고객이 3293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보험(손보사) 가입자가 2134만100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겨레>

#### 유전자조작 생쥐 새 마리 값 1000억원

지난해 미국에서 암 유전자가 제거된 생쥐의 특허권은 파마시아사에 5800만달러에 팔렸다. 또 비만 연구를 위해 유전자가 조작된 생쥐는 암연구소에 2000만달러, 치매 보철 생쥐는 일리-릴리사에 600만달러에 팔렸다. 이처럼 유전자 조작 생쥐의 가격이 높은 것은 이 쥐를 이용해 신약개발용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효용가치는 훨씬 크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현목의 세상읽기

## 배신의 시대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인격의 소유자가 사람됨됨이의 표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사회든 가정든 모든 관계를 막론하고 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 믿음이 늘 변함없이 굳건하게 있다면 다행이지만 사람들의 마음과는 달리 시류에 따라, 혹은 적절할 것 같아 따라 혹은 비록 생기는 것은 없었지만 나중 뉘 집대되는 바가 있어 믿음이 배신으로 바뀐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든 서양이든 간에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인격의 소유자를 사람됨됨이의 표상으로 삼고 있는 것일 것이다. 어떤 경우 세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러운 정도로 변함없는 사람을 벼랑하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그 할란의 깊은 속내에는 오히려 분방을 바가 있음을 내포한다고 보게 된다.

세태의 변화로 인해 인문사회과학은 뒷전이 되어 마침내 전문서적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

지난 해 말 서울의 신촌에 있는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적이 마침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전 그 서점을 간혹 들렀던 바가 있어 안타까움을 버릴 수가 없었다. 이미 세태의 변화로 인해 인문사회과학이 뒷전으로 밀렸고 무슨 첨단정보화 관련 서적이든가 아니면 윌간지, 그것도 주로 이삼십대의 젊은 층을 겨냥한 여성, 연예잡지가

서점의 판매대를 장악한지 꽤 된다. 한술 더떠 공상문학, 이른바 판타지소설이 장안의 지가를 조정할 정도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벽창호처럼 시대의 조류에도 아랑곳없이 인문사회과학서적전문은 전문으로 판다는 것은 없어서 돈을 까먹겠다는 의지의 소산일 것이다. 그런 모진 마음에 불구하고 결국에는 세태에 밀려 자신의 의지를 저버린 서점의 주인 심정이야 어땠을까.

저 광주의 그 침담한 학살의 소식을 담았던 누런 갱지로 엮여졌던 그 소식지를 받아들이고 부들 부들 떨었던 곳

지난 시절, 지금은 아득하게 잊어버린 그 시절,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았던 철팔십년대를 가슴앓이하며 살았던 이들에게 인문사회과학을 전문으로 취급하던 서점은 서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시인 양성우가 단적으로 표현하였듯이 '겨울공화국'의 시대에 그래도 양심을 간직하고 있던 공간이었다. 온갖 곳의 서점이 기껏해야 군부의 검열을 통과한 책을 전시하고 판매하였지만 그곳에 가면 민주주의의 한가닥 따스한 온기가 서려 있었다. 민중의 고향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담고 있는 서적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것만 어문학자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었던 브레이트의 시가 이름없는 청년에 의해 거칠게 번역되어 불법적으로 간행된 시집을 볼 수 있었고 러시아혁명의 지도자가 퍼낸 '무엇을 할 것인가' 일본판은

번역한, 그것도 정식출자가 아닌 구식타자기로 찍어 복사본으로 나뉘던 책자도 구할 수 있었다. 당연히 그곳에 가면 따스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다. 광포한 시대를 밀동부터 감아왔던 열정을 간직한 사람들이었다. 서로 알지는 못해도 그곳을 드나드는 자제로 '동지적 연대감'을 충분히 느끼는 사람들이었다. 철필로 굵어 배포하던 소식지, 저 광주의 그 침담한 학살의 소식을 담았던 누런 갱지로 엮여졌던 그 소식지를 받아들이고 부들부들 떨었던 곳. 그곳이 지금은 천원 기념품처럼 몇몇 안남은 인문사회과학서적이었다. 광화문의 털보서점, 그 맞은편의 논장, 대학의 인근에 있었던 광장, 장백, 앞, 인 그리고 지방의 각 대학가에 뒀지 생소한 이름 내세운 서점들. 그런 곳이 이제 두어 곳이나 남았나...

우리사회는 배신이 합리화되고 동토를 녹이려던 이들의 정열은 먼 전설이 되었다

그런 서점이 점차 사라지면서 아니 그 서점에서 함께 가슴앓이를 하던 사람들이 점차 돈과 명예를 좇아 자신들의 과거를 저버리면서 우리사회는 배신이 합리화되고 동토를 녹이려던 이들의 정열은 먼 전설이 되었다. 동토에 뭍혀져서 찌웠던 전사들의 이름조차 가말게 지워버리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익숙해진 이들이 되어 권력의 재생산 기반이 되었다. 우리 시대 영웅적인 전사의 모습을 보였던 김

남주시인은 이렇게 가슴 아파하였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나는/ 갑자기 지난날의 나로 되돌아가고 싶다/ 속박계에 가짜 이름을 적어놓고 뜬눈의 밤을 새웠던 찌구려 여인숙들/ 날이 새는 것을 두려워했던 어둠의 골목들/ .../ 차라리 어둠과 괴로운 시절이라면/ 가시덤불 속에서 감박감박 어둠을 쫓는 시늉이나 하다가/ 날이 새면 스러지고 마는 개뿔베레라도 될 것들/ 차라리 춤고 배고픈 시절이라면/ 바람 찬 언덕에서 늙은 상수리나무쯤으로 떨다가/ 나무꾼의 도끼에 찍혀 떨기나무로 쓰러질 것들/... (유고집의 시, '근황'에서)

과거를 팔아 정치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정권의 안위를 거론하고 사라진 자리에는 돈과 명예가 꼬이려 든다

인사들의 허름한 술집도 사라졌다. 대신 국적도 불명명 술집이 들어서고 저 동남아 뒷골목의 난장이나 다름없는 좌편의 장사치들이 설친다. 혁명을 노래하던 사회과학서점이 사라졌다. 대신 싸구려 연애소설이나 터무니없는 공상무협소설류가 사람의 의식을 농락한다. 전사가 사라졌다. 대신 과거를 팔아 정치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정권의 안위를 거론한다. 남만이 사라진 자리에 돈과 명예가 꼬이려 틀어 그 혀를 날름댄다. 감격도 없고 의리도 없고 깃발도 없고 진짜 사람도 없고...



### 총지총 1월 약사

총지총 1월 약사는 금번에 통리원에서 준비하여 발간한 총지총 교사 자료집에 근거하여 72년부터 89년까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89년 이후 자료집은 정리 되는대로 실겠습니다. (편집자 주).

- 73년 6월 준제관음상, 현도만다라 2000매 서고에 봉안  
9월 교도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교도명약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표함  
- 부처님의 가지력에 일심귀명하고 2세의 신심을 결정하겠습니다.  
- 사은십선(四恩十善)의 가르침을 받들어 육행(六行)을 실천하겠습니다.  
- 인과응보의 진리를 굳게 믿고 이단사설(異端邪說)에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 화합과 단결로써 국가사회에 헌신봉사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교법과 회칙에 절대복종하고 정법과 정의를 세우 현세정화에 정진하여 국가와 종단의 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  
- 부처님의 화타정신을 본받아 5세대 제도의 의무를 꼭 이행하겠습니다.
- 10월 경북 영일군 의창읍에 의창선교부 개설하여 설단불사를 거행하고 불멸심 전수법을 주교로 임명함.
- 16일 대전 삼성동에 대전선교부를 개설하여 설단 불사를 거행하고 계당 정사를 주교로, 총지화 전수를 보조승으로 각각 임명함.
- 75년 3월 금후로 스승에게는 전법관정과 불정삼매에게(佛頂三昧耶戒)를 수계한 교도에게는 전교와 법도장에 한하여 결연관정(結緣灌頂)하기로 결정했다.  
북악원법을 통리원에 삼매이계단을 개설하고 불정삼매이계를 수계함과 아울러 전법관정을 했다. 관정수계가 끝난 뒤 불국선교부 주교 임명장과 법의를 수여했다.
- 14일 경북 월성군 현곡면에 현곡선교부 불단이설 불사를 거행함.
- 21일 역리 강습회 개최하여 십이점성법, 구궁입법, 택일법, 작명법, 기타 필요한 강습을 함.
- 77년 5월 법등서원당 주교 북악원 전수사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 사직원 제출 수리  
- 개천사에서 수행하던 최상관보살을 전수로 임용하고 법등서원당주교를 임명함.
- 1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본산건물의 준공검사필증 수령하여 총본산 건축공사를 준공함
- 78년 24일 밀행사 주교 장창환 자재서원당 주교를 명함  
밀행사 주교 김일선 자재서원당 근무를 명함
- 26일 정각사에서 수행하는 대원화 보살을 전수로 임용하고 밀행사 주교를 명함
- 31일 응신서원당 주교 환당 통리원장 겸무를 명함
- 81년 20일 대정사 이원재를 재단상임이사로 취임인가를 문화공보부에 신청함
- 84년 1일 대중사 김태원 중령을 중무형편으로 수인사 주교를 면하고 동사 근무중인 대전사 박봉규를 수인사 주교에 임함.  
동일자로 승천사 근무중인 대법사 김하울을 수인사교무를 명함
- 16일 혜정사 주교 정사 이무형을 정각사 주교 겸 경상남도 부산직할시 교구장을 명하고 동사 근무중인 대인사 박해선을 정각사 근무로, 정각사 근무중인 대법사 박복철을 혜정사 주교로 명하고 인사 정영자도 혜정사 근무를 명함
- 85년 14일 진주 선지서원당 대법사 조상규 불의의 사고로 입적하여 영천에 통리원장으로 영결
- 89년 3월 제 2차 사감위원회 소집하여 승직자 중징계  
18일 벽룡사 주교 현덕정사를 지인사 주교 겸무로 발령  
30일 중헌 제21조항에 의거 총무부장 법공을 통리원장 직무대행으로 발령함



법 등 | 총지사 주교

### 지·상·설·법

## ‘육자진언과 함께하는 군복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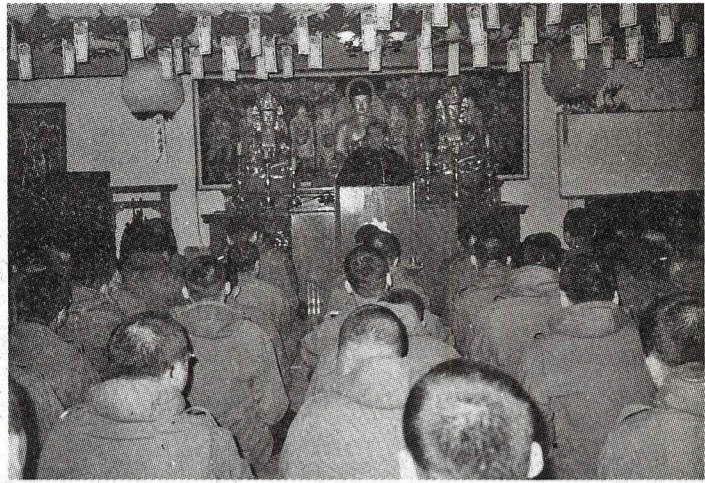
배려하는 마음 즉 베푸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른 군대생활이요, 결국은 자신을 지키고 위하는 것

이 설법은 지난 1월 17일 불교총지총과 자매결연을 맺은 51사단에서 행한 법등 총지사 주교님의 설법을 실었습니다. 되도록 설법의 내용을 그대로 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등 총지사 주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편집자주)

저녁 드시고 이렇게 오렇게 오시라고 하니가 상당히 괴롭히시죠.

그래도 주어진 종교시간인 9시까지인데 지금 7시 40분이니까 약 40분정도만 설법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괴롭히신데 자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염주는 다가지고 있습니까? 없으신 분은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소개받았듯이 밀교종단입니다. 밀교는 비밀불교, 음, 선종에서는 화두를 가지고 선수행을 하죠. 또 염불종에서는 염불을 하며 수행을 하고 또 절을 많이 하는 수행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총지총은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하면 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화두를 가지고 선을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염불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듣니다. 불가에서는 중생과 깨달은 부처님으로 나누는데 중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은 부처님의 세상이 아니라 깨달은 아라한의 세상도 아니고 또 수행자들의 세상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부족한 면도 많은,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원하는 것도 많고, 고통 또한 많은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인, 그래서 중생세상입니다. 이 중생세상에서 종교적인 수행과 힘을 가지고 혹은 빌려서 고통세상인 중생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보자는 것이 중생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솔직한 바람이지요.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문제는 이 현실사회에서 내가 필요한 것은 부처님의 힘을 빌려 가지고 한번 성취해보자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어서



에서 부족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몸에 병고(病苦)가 있는 사람은 그 병고를 벗어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큰 신비성이죠. 신비성은 이론적으로 접근하거나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우리 중생의 머릿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즉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귀로 들리지 않는 그런 세계죠. 그러나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신비의 세계죠. 이 신비한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밀교적 수행으로써 현실세계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언 수행의 공덕입니다. 우리 총지총에서 하는 수행은 진언은 옴마니반메혹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옴마니반메혹은 관세음보살의 미묘한 본심입니다. 관세음보살의 호칭 대신에 본심인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혹을 부르면서 삼매에 들고 수행을 하는 종단이 총지총입니다. 우리가 염주를 가지고 옴마니반메혹의 육자진언을 염하는 것이 우리종단의 대표적인 수행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이 진언의 공덕을 믿고 수행을 하면 큰 가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언은 우주의 신비력이 내재되어 있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 누구도 이 진언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진언은 믿고 수행함으로 해서

이 현실사회에서 바라는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언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종단입니다. 사실 진언에 대해서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서도 진언에 대해 잘 모르실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요며칠전 KBS대하드라마 왕건에서 궁예의 말에서 옴마니반메혹이 나옵니다. 이것이 진언입니다. 진언은 참진(眞) 말씀언(言)으로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입니다. 진언은 부처님의 비밀스런 말씀으로 주문과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쓰는 주문과는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언은 우주의 신비력이 내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해서 진언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뜻이라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말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삼매경지에 나온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주술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언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얻는 공덕이 대단히 큼니다. 이것이 밀교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언수행을 가지고 삼매에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불교적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공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도를 수행하는 목적을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성불이 불도 수행에 본래 목적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 성불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

듭니다. 극락이나 천당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속에서 극락을 누리지 못하고, 일상속에서 천당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죽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불은 이 중생의 세상을 잘사는 것, 잘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현실을 잘 살아가는 것은 내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내 고통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겠지요? 일단은 내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현실세계를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도수행하면서 불만족스런 현실을 성취시켜보자는 것이 종교 수행의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불교에 있어서 밀교적 수행 즉 진언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 이 진언은 우주의 신비력이 내재되어 있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 누구도 이 진언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진언은 믿고 수행함으로 해서 이 현실사회에서 바라는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불은 다음 이야기고 성불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먼저 해결해야만 중생세상을 중생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언수행을 가지고 현실

### 아는만큼 보이고 느낀다

일체(一切)의 문자를 대표하며 이 한 자에 무량공덕이 있다고 한다  
모든 진언총지(眞言總持)의 첫머리에 「옴(唵)」은 무슨뜻인지요?  
진언총지(眞言總持)의 초두(初頭)에 불리는 기도어(祈禱語)입니다. 이는 일체(一切)의 문자를 대표하며 이 한자에 무량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비장기(秘藏記)에는 귀명(歸命)·공양(供養)·삼신(三身)·경각(警覺)·삼보(攝伏)의 다섯가지 뜻을 설하며 이취석하(理趣釋)에는 삼신의 뜻과 무견정상(無見頂相)·본불생(本佛生)·여래호상공덕의 뜻이 있다고 설하고 옴자관(唵字觀)의 공덕을 밝힐 때 「옴」자는 일체의 법문이며 일체의 다라니모(母)이며 일체의 여래가 그렇게 알고 자(字)를 관(觀)해서 성불(成佛)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귀명(歸命)·공양(供養)·삼신(三身)의 세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삼신의 뜻은 아(阿)·오(訶)·파(麼)의 세글자에 차례대로 법(法)·보(報)·응(應) 삼신을 배대(配對)해서 해석합니다. 아·우·마는 「옴」의 세덕이며 한음자로 합해 「옴」이 됩니다. 「옴」자는 일체소리의 근본·본질·귀결이므로 일체만법은 이 자(字)에 귀속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옴」은 밀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 옛부터 신성(神聖)시 된 말로써 본래 신에 기도할 때 나오는 감탄사인데 이것이 신성한 기도. 찬양. 주문등의 첫머리에 쓰는 예어(禮語)가 되어 리그베다·사말베다(고대 인도인들의 기도문) 등에 자주 쓰였고, 우파니시드에 이르러 비로서 비밀의 의의(意義)가 있는 성음(聖音)으로 관념(觀念)의 대상으로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체 진언의 근본이 되며 일체 불(佛)·보살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 총지 생활 광고

본 광고면은 교도 여러분들을 위한 면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의견, 축하인사 및 홍보 등 교도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총지생활광고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552-1080~3  
FAX (02) 552-1082  
www.chongji.or.kr  
(게시판, 방명록 이용)

### 축 탄 신

#### 원정대종사 종조님

서울 경인교구 교도들은 원정대종사 종조님의 탄신을 일심으로 축하합니다.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혹의 용맹정진으로 총지총 교세발전에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서울 경인교구 신정회 일동

### 축 탄 신

#### 원정대종사 종조님

충청 전라교구 교도들은 원정대종사 종조님의 탄신을 일심으로 축하합니다.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혹의 용맹정진으로 총지총 교세발전에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충청 전라교구 신정회 일동

### 축 탄 신

#### 원정대종사 종조님

대구 경북교구 교도들은 원정대종사 종조님의 탄신을 일심으로 축하합니다.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혹의 용맹정진으로 총지총 교세발전에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교구 신정회 일동

### 축 탄 신

#### 원정대종사 종조님

부산 경남교구 교도들은 원정대종사 종조님의 탄신을 일심으로 축하합니다.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혹의 용맹정진으로 총지총 교세발전에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부산 경남교구 신정회 일동

### 축 합 격

#### 서울대 합격을 축하합니다

대구 국광사 교도 문두리 보살님 자녀 이해진양이 금번 수능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대 자연계열에 합격하였습니다.

대구 국광사 주교 법 성 합장

### 축 합 격

#### 한양대 합격을 축하합니다

대구 국광사 주교 법성님 자녀 김현경양이 금번 수능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한양대 예능계열 피아노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대구 국광사 교도 일동 합장

### 축 합 격

#### 서울대 합격을 축하합니다

부산 덕화사 교도 한혜민군의 최연소 서울대 특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산 덕화사 주교 대원 합장

### 축 탄 신

#### 원정대종사 종조님

총지총보 편집인 일동은 원정대종사의 뜻을 받들어 종단 창종 30년을 맞이하는 올해 제2창종 정진으로 용맹정진하겠습니다.

편집인 일동



# “지상에도 천사들이 있었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지상의 천사 분들·매일 웃는 낯으로 외로운 분들을 친딸 이상으로 반기시고 보살피시는 주간보호센터 선생님들, 아침 저녁으로 미소를 지으며 이 분들을 일일이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담당 선생님,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껏 봉사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천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관장님. 여러분들이 바로 천사들이십니다.

희망에 찬 2000년을 맞이한다고 떠들썩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다시한번 저물어 가나 봅니다. 요즘은 더욱 살기 어려워졌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 서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현신의 정'과 '나눔의 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한, 그래도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요사이 제 아버님을 바라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여러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현대 노인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외로움'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는 실제로 적지 않은 천사들이 현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 사라져 가는 노년기, 부모한테는 효도를 강요받고도 자식한테서 기대하기 힘든 세대, 상업주의의 만연에 따라 노인들이 딱히 즐길만한 오락이나 소일거리가 없어 겪는 외로움, 설상가상

살았던 전라도 전주에 어린 손녀 딸들한테 가지겠다면서 온갖 쓸데없는 물건을 가방에 챙겨 밖으로 나가시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열쇠를 숨겨 놓으면 한밤중에 망치로 현관문을 두드려 부수시다 넘어져 다치시기도 하면서, 매일 아침이면 일찍 양복을 단정히 입으시곤 가방을 든 채, 제가 자고 있는 방문을 두드려 서울역 가자고 조르시는 일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침부터 차에 모시고 거저으로 시골 간다면서 시내를 빙글빙글 돌기도 하며 기억을 되살려 드리려 온갖 방법을 다 써 보지만, 저도 모르게 아버님께 큰 소리를 지르는 불효자식으로 변해 버리기 일췌였습니다. 행여나 고혈압이신 어머니마저 쓰러지신다면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였으며, 차라리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고 계시는 것이 더 낫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것이 과연 사람이

있는 보호소는 소개해 줄 수 있지만, 가족들의 정만 하겠느냐'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보호소나 병원에 모시고 갈 수도 없어 절망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평소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제 안식구의 친구한테서 마음놓고 아버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며 이곳 복지센터를 소개받았는데, 인원이 딱 차서 대기자가 많아 언제 자리가 생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의 절망감. 집을 나가셨을 경우에 대비하여 치매가족회를 찾아 팔찌를 만들어 채워드리고, 다시 한번 청강생으로도 받아 주실 수 없냐고 때를 쓰자, "우선 본인이 적응할 수 있는지 한번 모셔와 보라"는 말씀을 주시던 이곳 담당 선생님의 얼굴이 그 순간 저에게 천사로만 보였습니다. 게다가 며칠 후에 정식 회원으로 받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야말로 제 딸이 대학교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의 기분보다도 더 흥얼거릴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하며 친 손녀딸이나 자식 며느리들도 그렇게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겹게 환대하며 맞아 주시는 담당 선생님들과 여러 봉사자 분들의 모습, 그리고 이분들에게 둘러싸인 채 황홀하여 여러동절하시던 모습, 아마 본인도 생전 처음 받아 보시는 대 영접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이든 누구나 느끼며 사는 외로움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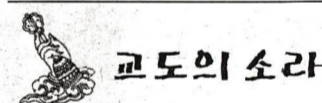
은 식구들이 절망감으로 안절부절 못했던게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센터에 공휴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허황된 욕심까지 가져 본다면, 아무리 마음씨 착한 천사분들이라도 저를 벌하시겠지요.

있는 보호소는 소개해 줄 수 있지만, 가족들의 정만 하겠느냐'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보호소나 병원에 모시고 갈 수도 없어 절망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평소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제 안식구의 친구한테서 마음놓고 아버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며 이곳 복지센터를 소개받았는데, 인원이 딱 차서 대기자가 많아 언제 자리가 생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의 절망감. 집을 나가셨을 경우에 대비하여 치매가족회를 찾아 팔찌를 만들어 채워드리고, 다시 한번 청강생으로도 받아 주실 수 없냐고 때를 쓰자, "우선 본인이 적응할 수 있는지 한번 모셔와 보라"는 말씀을 주시던 이곳 담당 선생님의 얼굴이 그 순간 저에게 천사로만 보였습니다. 게다가 며칠 후에 정식 회원으로 받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야말로 제 딸이 대학교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의 기분보다도 더 흥얼거릴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만, 노인들이 삭여야 하는 외로움이란 현대 의학의 힘만으로도, 신앙심만으로도,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만으로도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나 치매성 노인들에게는 오로지 '현신의 정'과 '나눔의 정'을 베푸시는 천사들의 도움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교종중사회복지재단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지상의 천사 분들·매일 웃는 낯으로 외로운 분들을 친딸 이상으로 반기시고 보살피시는 주간보호센터 선생님들, 아침 저녁으로 미소를 지으며 이 분들을 일일이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담당 선생님,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껏 봉사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천사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관장님, 여러분들이 바로 천사들이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0. 12. 27

이용희원 아들



### 고도의 소리

작년에는 저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 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불공도 참 많이 했지요. 그런데 올해 새해불공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 불공들 속에 뭔가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은 업대로 닦아 야 하고 복은 복대로 지어야 한다'는 스승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은 하나도 짓지 않으면서 부처님께 복 달라고만 서원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각사 신정회 총무직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 르긴 하지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에 힘이 납니다. 정각사와 총지중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사 년 한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각사 신정회 총무 김지영 보살

### 불교문학이야기

## 한국 시단의 거대한 산

이현주



### '미당 서정주'

20세기 마지막 달! 12월은 문학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달이 될 것이다. 한국 시단의 거장이며 세인(世人)들에게는 '국화 옆에서'라는 시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미당 서정주 시인이 작고하셨기 때문이다.

### '시인부락' 결성 본격활동·국민애송 현대시 수두룩

그의 위대함은 그가 일구어 놓은 시산(詩山)의 높음에 있으며,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시어로 승화시킨 그의 시정신에 있는 것

20대 초반에 결혼하여 육십 평생을 같이 동고동락한 부인 방옥순여사의 죽음은 여든을 넘긴 노(老)시인의 정신을 흔들어 놓았고 급기야 입원을 하였다. 입원 후에도 제한되긴 했으나 신문지상에 인터뷰에선 퇴원 후 거처에 대한 계획도 밝히셨는데... 결국 그가 쓴 시처럼 겨울 하늘에 우리 님의 고운 눈썹이 되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은 1915년 전북 고창 출신이며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다양한 시정신을 바탕으로 시 세계를 펼쳐 보인다. 미당의 시 세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그 의견을 달리 하나 전반적으로 그의 시 세계를 시기별로 5단계로 나누어 보는 견해가 많은데,

제1기는 '시인부락'에 발표한 시를 모아 1941년 '화사집'을 낸 시기로 이 시기에서는 보들레르와 니체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

악마적이고 원색적인 시풍이 주를 이루며, 제2기는 1948년 '귀족도'를 발표한 후로 서양적인 사상인 가혹한 원죄의식에서 벗어나 동양적인 사상에 접근한 영겁의 사상을 읊은 인생과 시인으로 심화된 정서의 세련된 시풍으로 민족정서를 시상에 올렸다.

제3기에 해당하는 '신라초'에서는 불교정신의 의한 전통성을 바탕으로 시정신을 심화하였으며 사마니즘적인 기조 위에 이루어진 신라의 설화를 재재로 보편적 진리의 세계인 영원주의의 이념과 동양적인 사상의 세계를 형성하였다.

1969년 시집 '동천'을 발표한 제4기에는 청년시절부터 인연이 깊었던 불교에서 배운 특수한 은유법의 매력에 크게 힘을 입어 신라와 불교의 신적인 유희를 통하여 인생과 인간을 관조하려는 신비한 색채를 보인 시기이다. 마지막 시기인 1975년 '질마재 신화'를 통해서도 토속적인 인간

생명의 감동과 의식의 한계를 벗어난 원시적인 사마니즘을 설화적 수법을 통해 보여준 시리라 할 수 있다.

시인의 존재에 무게가 더해지면 질수록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일제 말기에 행한 친일행각과 자유당 정권과 80년대 신군부 정권에 대한 동조의 글들은 그가 일구어 놓은 60여년의 시력(詩歷)에 큰 오점이 아닐 수 없으며 살아 생전 그의 참회 또한 그것이 아남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착각한 시대의 모순에 대한 타협과 동조의 삶이 아니라 그가 일구어 놓은 시산(詩山)의 높음에 있으며,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시어로 승화시킨 그의 시정신에 있는 것이다.

그가 떠난 빈자리 때문일까?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춥다.

#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2001년도 예산총괄표

단위: 천원

세입		예산액	세출		예산액
구분		예산액	구분		예산액
총계		213,920	총계		213,920
보조금		85,640	인건비		113,242
법인전입금		80,000	업무추진비		9,000
후원금		13,580	운영비		17,390
	소계	(30,000)	시설비		3,000
실비사업수입	주간보호센터	18,000	사업비	소계	(68,620)
	경로식당	7,200		주간보호사업비	21,960
	노래교실	1,200		경로식당사업비	9,600
	일어교실	1,200		사회교육사업비	4,320
	민요교실	1,200		지역복지사업비	7,100
	수족침교실	1,200		재가복지사업비	4,000
잡수입		700	식사배달사업비		18,000
전년도이월금		4,000	밀반찬사업비		3,640
			예비비		2,668



총기문화계 소식

부르주아 + 보헤미안, 디지털 시대의 엘리트 '보보'

부르주아와 보헤미안(Bourgeois & Bohemians)을 합성하여 만들어진 '보보'라는 신조어는 디지털 시대의 엘리트층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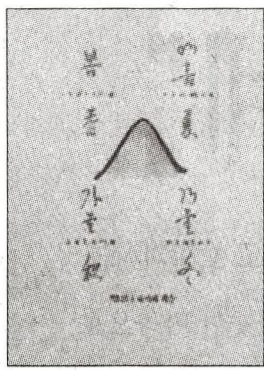
이들은 과거의 엘리트에 저항하며 자란 사람들이다. 풍요롭지만 물질주의는 반대한다. 무언가를 팔면서 삶을 영위하지만 자신이 팔리는 것은 거부한다. 본능적으로 반기독교적이지만 자신들이 이미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알고 있다. 부르주아의 야망과 합리성, 그리고 보헤미안적 자유와 상상력을 조화시킴으로써 보보들은 정치보다는 문화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사회를 혁신시킨다. 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예술가처럼 일한다. 그들에게 일은 영적인 자아와 지적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일종의 자기표현방법인 것이다. 조직속에서 일을 하지만 조직의 가치 못지 않게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신감과 적극성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

들은 고상한 자기 중심자들이다. 보보들에게 일터란 자금을 받는 곳, 재미있는 곳, 서로를 발견하는 사회적 장소이다. 일터는 곧 놀이터인 것이다.

이 책은 여러 면에서 매력적이다. 우선 재치있고 재미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낯선 예언적이다. 설득력도 있지만 또 느끼게도 해준다. 디지털시대의 엘리트로 부상하고 있는 보보는 보헤미안의 창의력에 부르주아의 야망이 결합되어 21세기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사의 사계, 법정스님, 류시화 손잡았네

“후박나무 아래는 수북이 잎이 흩어져 있네. 낙하의 질서를 지켜보면서, 사람도 저 후박잎처럼 자기 차례의 때가 되면 미련없이 질 수 있어야 할 것 같네...” 명상시인 류시화와 법정스님이 손을 잡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법정스님의 에세이 선집이 나왔다. 베스트 엔솔러지라기 보다는 엮은이이기도



한 류시화 풍으로 계절감을 피력한 대목만을 짤막짤막 추려 일종의 잠언집처럼 구성했고, 말미에는 스님의 편지글도 함께 묶여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들의 이름이 곧장 환기 시키는 것이 자연의 풍광이듯이 글 전편에는 산거의 한적함과 더불어 다람쥐, 노루, 속독새, 휘파람새, 후박나무, 파초 그리고 무엇보다 산내음이 흥신하다. 문장 어디에도 스님이 누구를 비난하거나 설교를 늘어 놓은 흔적이 없건만 읽는 동안 내내 아담맞는 기분은 스님의 자연 조화와 섭리에 의탁한 스님의 평정심이 아닐까 한다.

문소리의 영화세상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미래소년 코난, 천공의 성 리퓨타, 이웃의 토토로, 마녀배달부 키키, 붉은 돼지, 원형공주등 애니메이션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이들이라면 이러한 제목들은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어렸을 때 일요일이면 텔레비전 앞에 우리들을 포로로 만들어버린 '미래소년 코난'은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며 만화영화의 주제가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 모두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만든 애니메이션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미야자키 히야오의 작품이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줄거리는 이렇다.

행선은 도중에 '페지테'국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부해속에 추락하고 부해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나우시카는 부해가 대기와 땅이 독성을 빨아들여 정화하는 비밀과 이 숲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오무를 비롯한 곤충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바람계곡에서 이 사실을 모른채 부해를 불태우려는 토르메키아군의 거신병과 이에 대항한 페지테인의 오무를 이용한 접전으로 모두가 파멸할 상황...

나우시카의 영력이 통해서일까?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오무의 무리는 그 공격력을 잠재운다. 잠시의 정적 후 죽은 줄 알았던 나우시카가 오무의 찬란한 황금촉수에 떠받쳐서 비상하며 깨어난다. 바람계곡의 큰할머니는 아이들이 들려주는 그 광경에 전설로 전해지는 푸른 옷을 입고 황금들판을 걷는 전사가 나타났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바람계곡은 영웅적인 나우시카에 의해 다시 평화를 찾았다는 줄거리다.

우리는 이 영화에서 몇가지의 특징과 미야자키 히야오의 철학과 사상을 읽을 수가 있다. 이야기의 중심에 여성이 등장했고, 게다가 이 여성을 기존 사회속에서 반복되어 온 전형적인 남성영웅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나우시카의 진정한 힘은 '폭력'이 아닌 '이해와 대화'라는 능력이다. 다음은 상업 애니메이션에서 무시되기 일췌인 곤충과 조역들에게까지 개성을 부여한 섬세함을 볼 수 있다. 셋째는 이분법적인 선악의 구분이 한층 모호해져 인간들간의 대결구도도 여전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의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배경이나 상징 도구들은 고대 신화의 틀속에 담겨있긴 하지만 그것은 현대명사화에 대한 진지하게 성찰을 할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야자키의 작품



을 보고 있으면 행복해진다 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작품속에 펼쳐져 있는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 때문이다.

Comics section titled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비주얼 세상' featuring a character named '아' and various humorous panels with dialogue.

총기동지의보감

알콜성 간질환

김옥희 | 김내과 의원 원장



술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으며 인간생활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와 같다고 한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는 간을 포함한 여러 장기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술소비량은 세계적인 수준이며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 한다. 술소비량의 증가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체내에 흡수된 알콜은 대부분 간에서 대사되고, 해독되는데, 알콜이 간질환을 일으키는 이유는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알콜 양보다 많은 양을 마시기 때문이다.

알콜에 의한 간손상은 알콜양과 관계없이 술의 종류와는 무관하다. 정상 간은 하루에 순수 알콜로 40~80g정도 대사시킬 수 있다. 소주는 25% 알콜도수를 가지므로 2홉들이 소주 한병에는 90g의 순수 알콜이 들어 있다. 간이 해독할 수 있는 알콜양 이상을 마실 경우 결국 간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알콜은 지방간, 급성 알콜성 간염,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과 같은 간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간에서 대사

할 수 있는 알콜양은 성별, 개인차가 많이 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간질환 발생에는 개인차가 있다. 그러나 많이 마시는 경우 간질환 빈도가 높아지고 만성, 그리고 중증 간질환이 생기는 것이다.

간질환의 증상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부터 심한 피로감, 무력감, 메스꺼움, 식욕부진, 상복부 불쾌감, 통증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지방간의 경우 가벼운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으나 심한 경우 우상복부 통증이나 피로감을 일으킬 수 있다. 지방간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며 술을 끊으면 수개월 내에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간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시게 되면 급만성 간염,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며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 특히 간경변으로 진행된 경우 정상 간세포는 파

괴되고 섬유질로 대체되어 간은 울퉁불퉁하게 되며, 이때는 현대의학으로도 간을 원상복구 시킬 수 없게 된다. 이런 만성 간질환 상태에서는 반복적으로 간세포의 괴사가 일어나고 간은 재생을 통해 이를 복구하려 한다.

염증과 재생이 반복되는 상황은 간암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특히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만성적으로 음주를 하게 되면 간암이 빨리 발생한다고 한다. 알콜성 간질환 치료의 대원칙은 금주이다. 술로 인해 생긴 병이니 술을 끊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적당한 양의 음주를 하는 절제의 미덕을 갖는 것이 술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김내과 의원 (053)792-5115



늘 새로운 맛과 정성으로 불자님과 함께하고 있는 새광명회관

청정화보살합장

광주직할시 남구 구동 광주시민회관앞 (법왕사역) 전화:(062)653-3929, 673-1052





### 연꽃마당

더러운 진흙탕에서 피는 연꽃처럼 사회에서 꽃피우는 佛子들의 이야기

#### 법장원장 신년하례법회참가



지난 1월 19일 오후3시 서울 하림각 특설 법회장에서 전 불교계 대덕 큰스님과 1000여 명의 내의 신도가 모인 가운데 '국운융창 및 국민화합을 위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우리 불교총지중에서는 효강 법장 원장과 선도원 재무부장이 참석하였다.

불교계의 신년대법회는 26개 불교종단 수장들과 지도자 등 1,000여 명이 함께 모여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새해 첫 연합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신년하례를 겸해 열리는 행사지만 나라의 위기극복과 사회안정을 위해 종교계가 먼저 지혜와 화합정신을 발휘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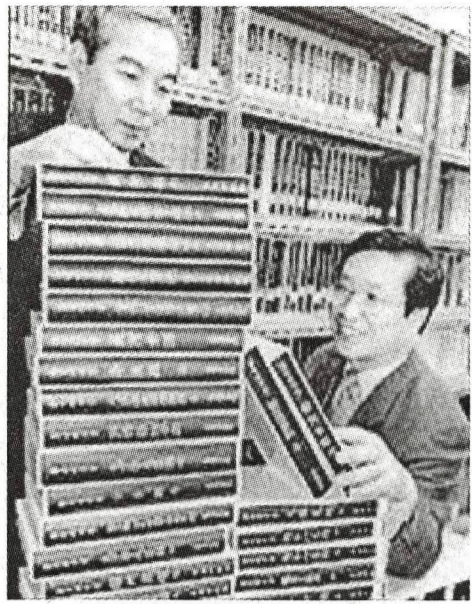
김대중 대통령은 신년 대법회 축하메세지에서 불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호국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민족의 안위와 번영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며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불교계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날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승님은 봉행사에서 지금 우리 나라는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혼란하고 사회가 평온치 않으며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은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수처자주하여 바로 선 자리에서 행할바를 바로 행하는 주인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

였다. 세속의 명예와 빈부, 지역과 이념의 차이는 분별심에서 비롯된 것이니 우리사회의 분별심을 없애고 화합하는 일에 국민 모두가 나설 것을 호소하였다.

이날 법회에는 새천년 민주당 김중권대표와 고건 서울시장 및 많은 정치인과 스승이 참석하여 법회의 자리를 빛내주었다.

#### 한국불교 꿈을 이루다



고려대장경 번역36년만에 318권 폐내 한국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려대장경 구역이 36년만에 끝났다. 동국역경원은 최근 '한글대장경'의 마지막 부분인 '일체경음의' '신집장경음의수합록'을 발간. 지난 1965년 '한글장아환경' 이후 시작된 우리말 대장경 간행 사업을 총 318권으로 마무리 했다.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한문 대장경으로 꼽히는 고려대장경은 1516종, 6815권의 방대한 분량이다. 이 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불경뿐 아니라 그 해설서인 율, 론, 사전류, 지리서, 시문집 등이 두루 망라돼 있어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고려대장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은 한글 창제 이후의 과제였다. 조선 세조때 간경도감을 두고 국역작업을 벌였고 일제시대에도 용성스님의 대강회에서 번역 작업을 했지만 모두 일부에 그쳤다. 그러다가 1950년대 운허·자운·석주스님 등이 뜻을 모아 법보원을 만들어 다시 번역작업을 시작했다.

대장경 구역은 불교조계종이 출범하면서 종단 3대 사업의 하나로 역경을 내세우면서 1964년 동국대 부설로 동국역경원이 설치되고 이듬해부터 매년 8권씩 한글대장경이 간행되기 시작했다.

한글대장경은 일단 완간됐지만 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동국역경원은 올해부터 한글 대장경의 개편·보완과 전산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30년 넘게 번역이 진행되면서 들쭉날쭉하게 된 맞춤법 표기와 체계를 통일하는 한편 사진과 주석, 색인을 추가할 방침이다.

#### '돈 한푼없다 가진건 탁발 바리때뵈'

1990년대 전만 한국 무용계를 주름잡다가 94년 돌연 자취를 감춘 현대 무용수가 있다. 1년전 미안바에서 6년만에 귀국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보리수선원에서 석가모니 붓다의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지도하는 붓다 락키타(45)스님이 그 무용수 강승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것은 나와 신자들에게 모두 유익하다. 어떻게 먹을 것 다 먹고 수행할 수 있겠는가. 주위에선 계율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모습에 애처로워 하지만 그는 미안바에서처럼 탁발하지 않고 앉아서 밥을 받아 먹는 한 까마저도 송구스러워 한다. 그는 현대인들의 현실적인 고통을 뒤로 한 채 다만 제사와 기부에 얽혀 살아가는 한국불교의 모습을 안타까워 한다. "절은 죽은 후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 결과를 해결하는게 아니고, 원인을 해결하는게 불교다. 죽은 뒤의 천당, 극락만을 찾는 것이 중세에 면죄부를 파는 것과 다를게 무엇인가" 반문을 한다

#### 종교개혁 평신도들이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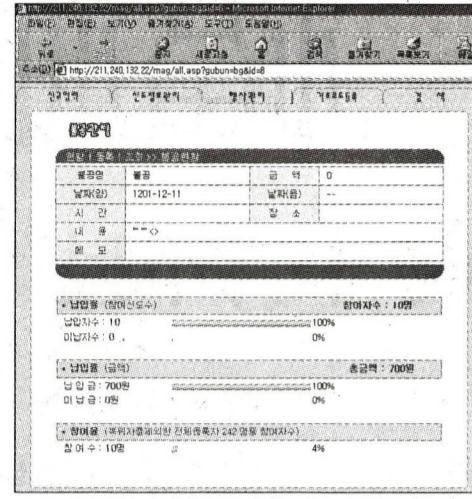
일반불자들의 모임인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임완숙)가 "도박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 강성해(45)스님을 지난달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에 임명한 것은 잘못됐다"며 시위를 추구하고 나섰다. 재가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성혜스님은 지난 98년 도박사건으로 구속돼 법정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도 총무원은 종책집의사에서 "기획실장 임명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임용사전에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여러스님들의

추천과 의견을 수렴해 임명했다"고 답해 도덕적 상식이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재가연대는 불교계 개혁운동은 성해 기획실장 사퇴를 가시적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찰재정공개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종단의 재정·정화운동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 인터넷 포교가 시작됐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여의구 관장은 약 1년여의 준비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사찰관리 및 신도관리" solution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찰관리 '열린불교' log in 화면)

이번에 발표되는 "열린불교"는 사찰관리 뿐 아니라 신도에 대한 e-mail 발급, cyber 신도회 및 동호회 관리, cyber 법회, 문자메세지(sms) 등 다양한 인터넷 솔루션을 통합한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예정이며 cyber 포교를 위한 모든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인터넷 사용인구는 2000년 말 기준으로 1,700만을 넘어섰고, 고속통신망 사용자만해도 400만이 넘어섰다. 이제 인터넷의 사용은 더 이상 고급의 문화환경이 아닌 생활이 되었고 인터넷을 이용한 포교는 참례된 불교 포교의 일대 전환기가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여의구 관장은 "몇몇의 종단과 사찰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포교노력은 있지만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인 1:1 커뮤니케이션, 맞춤 포교 등의 여건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고 열린불교는 이러한 현실의 포괄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열린불교"의 미래 포교 대안의 성공적 결과를 기대해 본다.

#### 인터넷 세상속의 성인들(2)

### VEN CHUK MOR IN MALAYSIA

(말레이시아의 성인 벤척모어)

현대 말레이시아의 불교발전은 벤척모어를 연구할 가치가 없다. 벤척모어는 말레이시아에서 영어교육을 받은 불교 성직자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다. 그는 1952년 말레이시아에 왔으며 그 후 수천명의 대중을 교화하였다. 그러나 영어교육을 받은 불교 성직자들은 벤척모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벤척모어는 1953년에 말레이시아에 왔으며, 중국불교 성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벤척모어는 1913년 중국 제지안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첸드양이다. 그의 부모들은 열성적인 불교신자였으며 불교 환경속에서 성장하였다. 열 두 살에 그는 수행자가 되었으며 1928년 16살에 스님으로 출계를 받았다.

벤척모어는 1913년 중국 제지안 지방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첸드양이다. 그의 부모들은 열성적인 불교신자였으며 불교 환경속에서 성장하였다. 열 두 살에 그는 수행자가 되었으며 1928년 16살에 스님으로 출계를 받았다.

벤척모어는 중국 개혁후 중국 미얀마 불교를 개창하고 구 불교를 현대적 불교로 전환시키기 위한 위대한 개혁자 타이주스님이 개설한 미얀불교 기구에서 공식적인 불교교육을 받았다.

벤척모어와 같이 수행한 벤척모어는 후에 매우 유명한 미얀마 스님들이 되었다. 벤척모어는 다작을 남긴 불교작가 겸 대변인으로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20세기에 보수적인 중국 불교를 새로운 현대 불교 개혁의에 앞장섰다. 2차 세계대전 후 그는 전쟁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홍콩으로 건너간 후 다시 마카오로 갔다. 거기서 그는 화가인 가오지안을 만나 그림공부를 하여 중국 그림 및 서체에 대가로 인정을 받아 몇 번의 전시회를 가져 호평을 받았다.

1953년 그는 태국에서 불교경전 전도자로 초대되었으며, 방콕에서 폐남으로 건너가 말레이시아 두 번째로 큰 불교기구인 페낭 고등학교에서 불교경전을 강의하였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그 후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불교를 성장시키는데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의 많은 작품들은 신문, 잡

http://www.geocities.com/~buddhistnews/page202.htm

#### 썸소리 단소리

### 개혁의 기본

역대정권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개혁'이란 단어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개혁을 둘러싼 부조화하고 불합리한 상황들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다분히 이해관계에 얽혀 변질되었기에 개혁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었고, 그 개혁은 시작부터 이미 개혁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느 국민인들 개혁에 박수를 보낼 것인가? 이제 국민의 정서는 "개혁의 대상은 다른 누구보다 개혁을 주도하는 당사자인

정부와 정치인들"이라는 말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그럼, 과연 개혁이 나쁘고 불필요하며, 이렇게도 어렵고 불가능하기만 한 것일까? 개혁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거창한 데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는데서 개혁은 시작된다. 모두가 제자리를 지키며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개혁의 기본이다. 이 기본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고, 끝이다. 개혁의 기본에 충실할 때 불신(不信)은 사라지고 신뢰는 회복될 수 있다. 개혁은 낡은 의식을 바로잡고 자신을 철저하게 다그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나의 개혁'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법과 제도 이

전의 문제로서 철저하 '원칙과 기준'에 따르는 것이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고, 우리 모두의 약속이다. 몇몇 소수에게만 통하는 약속은 우리 모두의 약속일 수 없다. 그것은 사기와 절도이다. 약속을 받아 해택을 크게 본 자들은 편리하고 서로 좋지 모르나, 그 사회구성원 전체는 불신과 반목으로 얼룩지게 된다. 종말에 가서는 공멸(共滅)하고 만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집행해나간다면, 모든 일은 불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불신은 바로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인 존재다. 이 암적인 존재를 없애는 것, 그것이 모든 일을 순탄하게 펼쳐나가게 하는 정답이다. 그런 해답을 위해

'모든 일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원칙과 기준은 공사(公私) 구분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한다. 공적인 일에 사적 감정을 개입한다면 사적인 일에 공의 것을 끌어 들인다든지 하는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대체로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이 허다하다.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지 못하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공과 사의 구분이 있을리 없다. 그것이 개혁의 기본임은 말할 것도 없고,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인 것이다. 이러한 사고와 삶의 태도가 어디 일반사회에서만 국한되었는가. 어떤 조직, 어떤 단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기본들이다. 울 한해, 우리 종단도 더욱 기본이 바로 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 신선한 야채의 향기를 입안 가득히 ... 불자님과 함께하고 있는 초정쌈밥

자 비 심 보살 합장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37-12

전화 : (02)409-3477



사원탐방은 종교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02)552-1080 팩스:(02)552-1082

## 布施와 福祉

###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취재 박현수 · 황의수

복지(福祉)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행복한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은 어떠한 삶이며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기준은 개개인의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많은 차이에 따라 다르다. 결국 그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많은 사회복지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목적사업으로 행(行)하는 복지는 그 대상자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고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행복이란 스스로의 생각과 노력으로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지 결코 타인이나 외부에서 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단체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것은 행복을 나누어주는 것 보다 불행을 나누고자 하는 것, 가득 고여 있는 불행을 조금씩 나누고 불행이 떨어져 나간 빈 공간에 행복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단체의 역할이 아닐까. 사회복지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동정일 수밖에 없다. 불교는 그것을

지금의 복지사업은 질적으로 또는 방법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날 교화나 교세는 그 종교단체가 하는 복지사업의 성과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는 복지법인도 종단 내에서 틀림없이 큰 역할을 기대하며 총지종 복지법인은 설립한지 아직 두 돌이 채 안되어 어리고 미숙한 점이 참으로 많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지적이나 힐책보다는 격려와 애정이 더 필요하다.

보살도(菩薩道)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보살도의 대표적인 실천 덕목으로 보시(布施)를 흔히 말한다. 해심밀경지 바라밀다품(解深密經地波羅密多品)이라는 경전에서는 보시를 각각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법시(法施)요 둘째가 재시(財施)요 셋째가 무위시(無畏施)라고 했다. 무위시란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어떠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일체생명의 두려움을 없애 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무위시가 현대 복지사업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총지종은 일찍이 교화의 방편으로써가 아니라 보살도의 실천으로써 복지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종단의 복지사업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했음을 절실히 통감하여 그 해결 방안으로 1999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을 인가 받아 그동안 종단에서 해오던 모든 복지사업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넘겨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활동해 오고 있다.

많은 종교단체가 자비 혹은 사랑이라는 교리의 실천방편으로 대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화나 혹은 대외적 교세의 과시용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단체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 총지종은 그러한 오늘날 현상들을 개관하며 종교나 지역 등 사람을 구분하는 모든 기준을 초월하고 오로지 복지의 근본의미인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데 설립목적과 함께 있다. 설립한지 겨우 일년 반, 경험이나 인력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터득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픔을 주위나 경험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그러한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법인의 이사장이신 효강님은 복지를 행하는 방법은 무공무진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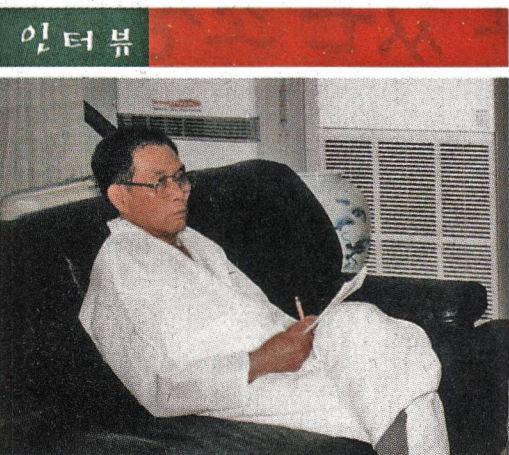
그것은 크고 작고를 구분하지 않는다 하시며 내가 나누고자 하면 한없이 줄 수 있고 나누어 준 만큼 자신의 삶도 풍요로워진다고 항상 말씀하신다. 복지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계신 분이다. 효강님은 경남 유천에 있는 일상사 주교이며 종단의 교리해석, 밀교경전 번역 등 교학연구를 맡고 있는 법장원 수장인 법장원장직을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으며 통리원 통리원장직도 두 번이나 역임하셨다. 복지법인이 처음 발기될 때부터 발기인 대표로서 법인설립에 누구보다 애써왔고 현재도 법인이사장으로서 총지종사회복지법인의 발전과 종단의 발전을 위해 노심조사하고 계신다.

현재 법인은 이사장님이신 효강님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이사님과 감사 두분을 임원으로 두고 서동석(玄默) 사무국장과 통리원에서 사회부를 맡고있던 박현수(道玄)교무가 복지법인실무를 하고 있다. 부족한 인력은 수시로 통리원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총지종 사회복지법인의 체계적인 활동이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전담인원이 빠른 시일내에 증원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는 불교종단은 조계종 진각종 천태종 그리고 우리 총지종 네 곳뿐이다. 진각종은 우리보다 1년 먼저, 천태종은 우리보다 늦게 설립하였다. 총지종 복지재단은 재할당체나 각종 보호시설에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그러한 단체나 시설에조차 입소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있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경제적 혹은 치매나 노인성 질환 등의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으로부터 소외되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남고령자 취업알선센터는 정년퇴임 후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노인들에게 재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복지센터 지하식당의 무료급식은 하루 사용자가 100명이 훨씬 넘을 정도로 지역 내에서 이용도가 높다. 지난해 1월에는 한민족 동포돕기 행사로 추위와 굶주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에게 겨울의류 및 신발·침구 등을 북측 불교단체인 조선불교연맹을 통해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보내어 조선불교연맹 박태화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의 서신도 받았다. 7월에는 종단 어린이 청소년 수련대회 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들이 모여 만든 단체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청소년 가장 및 시설 장애인 청소년 1000여명이 모인 여름캠프의 후원법인으로 그들과 같이 했고, 복지법인사무국이 위치한 강남 지역노인들을 위한 은빛노인축제를 열어 영정사진 촬영, 머리염색 및 퍼머·커트, 수지침시술, 한방진료 등을 일체 무료로 하여 지역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도 역시 복지법인의 사업목표는 정해져 있고 예산까지 종단 중앙총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회사를 경영하듯이 수입과 지출, 생산과 투자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놀이는 아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법에서 만든 예산수치 만큼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한정 지원이나 후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종단사정에 따라 복지법인의 인력, 재정정도에 따라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것이 총지종사회복지법인을 발전시키고 종단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복지국가를 이루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서두에 잠시 언급했지만 총지종은 교화의 방편으로 복지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로지 보살도의 실천덕목일 뿐이라고. 그러나 복지사업이 교화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복지사업을 통한 교화나 교세발전은 복지사업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것 일뿐 목적이 없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복지사업이 종단에 이득은 없고 투자만 있다며 복지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방직후 서양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가장 앞세웠던 것은 다름 아닌 밀가루나 의류 혹은 의약품 같은 물질적인 후원이다. 물론 약간의 서양과 학이나 사상도 같이 들어 왔지만 그것은 종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학술적인 교류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들이 앞세웠던 구호품들은 오늘날의 복지사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복지사업을 통해 교화를 했고 교세를 넓혔고 오늘날 곳곳에 그들의 신앙의 상징이 지붕마다 꽂혀있다. 그때의 복지사업과 지금의 복지사업은 질적으로 또는 방법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날 교화나 교세는 그 종교단체가 하는 복지사업의 성과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는 복지법인도 종단 내에서 틀림없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지금의 총지종 복지법인은 설립한지 아직 두 돌이 채 안되어 어리고 미숙한 점이 참으로 많다. 복지법인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지적이나 힐책보다는 격려와 애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가 운영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평가와 2001년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사업운영 계획에 대하여.....  
우리종단은 불교 타종단에 비해 일찍부터 사회복지사업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를 강남구청으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불교총지종이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종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01년 올해는 더욱 부처님의 정신인 동체대비와 자비 정신으로 복지관련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종단도 또한 많은 관심으로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불교계에서 사회복지사업은 조계종, 총지종 등 몇 개의 종단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을 더욱더 확대하고 진척시킬 방안이 대하여.....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우선 우리종단은 일찍부터 복지부문에 많은 관심과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각자적인 입장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

고 아직까지 종단과 스승 그리고 교도들의 관심은 있지만 무엇보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야 한다는 정신이 종단과 교도들에게 일반화 되었으며 이런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1년에는 불교총지종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종단으로 만들겠습니다.  
▶ 복지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아니면 종단에 바랄 점들은.....  
아직 복지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일부에서는 부자나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진정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불제자라면 절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었지요 그런 면에서 종단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지사업만큼은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긴시간 좋은 말씀 그리고 취재에 많은 협조 감사드립니다.